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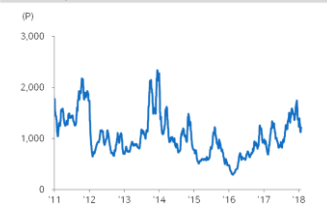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358.2	19.7	140,000	0.7	45.9	-5.7	45.9	97.6	46.8	0.7	0.7	0.7	1.4
현대모비스	7,540.7	21.7	463,000	1.3	21.5	5.1	21.5	6.2	5.2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1,311.4	7.7	128,500	4.5	12.7	8.7	12.7	12.2	10.6	1.1	1.0	9.3	9.7
현대건설기계	2,014.8	9.6	204,000	0.2	20.7	10.0	20.7	13.0	9.6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654.3	19.3	9,370	2.0	27.8	-18.5	27.8	59.1	29.3	0.6	0.6	1.0	1.9
대우조선해양	2,501.1	6.2	23,450	-3.3	68.7	28.8	68.7	9.5	10.5	0.6	0.5	5.8	5.1
현대미포조선	2,230.0	13.7	111,500	0.0	41.7	1.4	41.7	24.1	17.4	0.9	0.8	3.6	4.8
한진중공업	3,950.0	6.4	3,725	0.1	12.5	0.3	12.5	74.9	18.7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502.6	36.4	61,000	1.3	12.1	10.7	12.1	10.8	10.5	1.5	1.3	14.6	13.3
두산벌크	3,644.1	27.3	36,350	-1.8	1.5	3.3	1.5	13.3	12.6	1.0	1.0	7.4	7.6
현대로템	1,462.0	26.0	17,200	0.3	-8.3	-11.6	-8.3	22.2	15.1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65.5	47.8	26,850	3.3	19.3	8.7	19.3	12.2	11.1	1.0	1.0	8.8	9.0
성광벤드	346.1	16.2	12,100	3.4	21.2	22.3	21.2	1,069.6	43.4	0.8	0.8	0.1	1.8
태광	382.9	17.0	14,450	4.0	19.9	43.6	19.9	86.3	42.1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777.9	9.8	16,700	-1.8	8.8	-1.5	8.8	11.8	9.3	0.6	0.6	4.4	5.8
두산인프라코어	2,319.2	12.9	11,150	0.9	28.3	17.5	28.3	10.1	9.2	1.0	0.9	10.9	10.2
두산엔진	306.6	3.6	4,455	-0.6	20.9	5.1	20.9	201.1	51.9	0.6	0.6	0.3	1.1
한국항공우주산업	5,039.5	17.9	51,700	-1.7	9.0	-9.3	9.0	32.6	23.4	3.7	3.3	11.3	14.6
한화테크윈	1,770.0	15.7	33,650	0.0	-5.3	-14.2	-5.3	19.2	14.5	0.7	0.7	3.8	4.9
LIG넥스원	1,315.6	11.4	58,800	2.0	0.0	-17.5	0.0	18.0	14.0	1.9	1.7	10.9	12.8
태웅	474.2	2.2	23,700	-1.9	22.5	22.8	22.5	N/A	N/A	N/A	N/A	N/A	N/A
동성화학	227.5	4.7	8,430	1.3	66.9	71.0	66.9	-351.3	49.9	2.4	2.4	-0.7	5.0
한국카본	310.8	16.3	7,070	-1.0	31.9	19.8	31.9	29.6	26.4	0.9	0.9	3.2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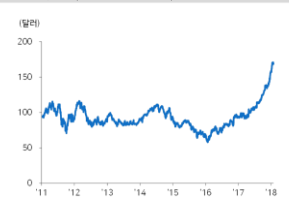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8 111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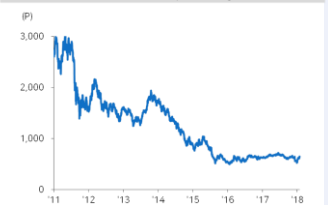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54 162.24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olls-Royce marine 'buyers in frame'

롤스로이스의 해양 사업부 매각 검토 발표는 노르웨이 Aker와 현대중공업의 관심을 끌었다고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는 이달 초 석유 및 가스 시장 부진으로 슬럼프에 빠진 해양부문을 사업부를 팔겠다고 발표했다. 해양 사업부는 파워터빈 등의 장비를 공급한다고 알려졌다. Bloomberg는 Aker, 현대중공업, Wartsila, 기타 PEF 등을 인수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애널리스트들은 군용 부문을 제외한 해양 사업부의 매각가를 7.1~11억달러로 분석함. 롤스로이스는 2014년 Wartsila에 인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음. 2016년 2,700만파운드 손실을 낸 해양 사업부는 비핵심사업 매각과 30% 인력감축 등의 비용절감을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Upstream)

Fukuoka buys yard rival Watanabe

케미칼 탱커 전문업체 일본 후쿠오카 조선소는 최근 경쟁사 와타나베 조선소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와타나베는 최대 5천GT 선박을 짓는 작은 조선소로, 최근 엔지니어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사를 매각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중소형 조선소는 불황에서 생존을 위해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임. (TradeWinds)

GasLog Partners forecasts higher LNG demand

GasLog는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LNG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올해 LNG 가격과 운임이 계절적 영향을 받으나, 장기적인 운임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기존 선박과 수주잔고를 제외해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MES inks tie-up with Tsuneishi

일본 MES(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와 Tsuneishi Shipbuilding이 비즈니스 동맹을 발표했다고 알려졌다. 양사는 한국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상선, 특히 벌크선의 공동설계 및 건조를 고려한다고 알려졌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필리핀의 해외조선소의 공동운영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대만, Sulphur Cap 시행 1년 앞당김다

대만은 IMO의 황산화물 규제(0.5% Sulphur Cap)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만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이나 국제 무역선은 황산화물 배출을 조절해야 함. 대만 정부는 올해 해운선사의 연료규정 준수 촉진을 위해 지원할 예정임. (선박뉴스)

한국 조선, 1월 11억달러 · 18척 '상선 수주'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1월 11억달러 규모 18척의 상선을 수주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은 총 10억달러, 15척을 수주함. 또 ASLNG 해양플랜트의 Hull 부문을 수주함.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1월은 해외 선사의 휴가시즌이자 사업계획 구상 등 준비하는 시기로, 발주가 거의 없는 편으로 알려졌다. (EBN)

日 조선업계 통합은 진행 중

일본 조선업계가 생존을 위한 통합 작업이 계속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최근 후쿠오카조선은 와타나베 조선소를 인수함. 또 이달 초에는 이마바리조선이 미나미니폰 조선 인수계획을 발표함. 미쓰이조선은 츠네이시 선박과 제유를 모색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오시마, 나무라, 이바라리와 동맹을 결성함. (선박뉴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보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